

시론



박 돈 히

전남대 명예교수회 회장
홍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전공동대표

은 천지가 푸르고 싱싱하다. 오월은 우리에게 활력을 주는 달이며 가족과 주변을 돌아보게 되는 달이기도 하다. 5일은 어린이 날이다. 젊은 부부들이 천사 같은 아이들과 함께 있는 모습은 한 폭의 명화 같다. 요즘 저 출산 극복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기발한 대책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어린이날에 대한 생각이 깊어만 간다. 8일은 어버이날이 아닌가! 아버지라는 단어만으로도 가슴 뭉클한 일이다. 또한 15일은 스승의 날이다. 우리나라를 이토록 부강한 나라로 만든 요인 중 하나가 선생들의 헌없는 제자 사랑과 부모의 자식 교육열에 기인함은 자타가 공인하는 일이다. 이토록 5월은 우리들을 많은 생각에 잠기게 하는 달이다.

필자가 대학에서 정년을 하고 새 타이어를 바꿔 끼지도 벌써 2년3개월이 지나고 있다. 새 타이어를 바꿨으니 어릴 적 새 신발을 신을 때처럼 신바람이 난다.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다. 혼자 하는 일은 그럭저럭 할 수 있다. 그러나 작은 행

사라도 하려면 수족이 없는 몸통만 있는 신세가 되어 마음만 앞서고 일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급년 1월에 정년 한 대학의 명예교수회 회장직을 맡았다. 회원이 230명 정도인 작은 모임의 회장이다. 회장이 되어 2번째 명예교수 포럼을 계획하고 지난 5월15일 스승의 날 행사를 하였다. 행사를 치룬 그 다음 날은 온몸이 말을 듣지 않아 하루 종일 고생을 하였다. 재직 때에는 학교조교선생과 대학원생이 있고 동료교수가 있었다. 최고의 실력자들이 모인 조직이라 행사준비와 진행이 순조롭게 처리되었다. 그러나 퇴임교수의 모임엔 모두가 머리와 몸통뿐이다. 손과 발이 될 조직이 없으므로 회장과 임원 몇이서 행사준비, 섭외 그리고 진행을 맡아서 해야만 한다.

5월 포럼의 주제는 '보고 싶은 제자, 찾고 싶은 은사'로 정하고 대학교 총동창회의 협조를 얻기로 협의의 하였다. 명예교수 50명 제자 50명을 합하여 100명이 참석하는 행사를 준비한 것이다. 초빙연사로 시내 조이비인후과 전문의원인 조원장님을 모셔서 특강을 들었다. 조원장님은 그동안 의사로서 환자 진료를 보시면서도 틈틈이 저술활동도 왕성하게 하시는 분이다. 특히 그는 '박혁거세와 클레오파트라'는 책을 출간해 신라시대 박혁거세와 서양의 클레오파

트라를 시대적 동창으로 보는 식견을 보여주었다. 그분에게 특강을 지식기부로 요청하면서 미안하고 죄송스러웠다. 그런데 원장님은 저서 50권을 참석자에게 선물로 선 듯 내주셨다.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에게서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기분이었다. 필자는 여기서 그 원장님이 강연하신 특강내용을 독자와 공유하고 싶었다.

대천명(待天命), 멋진 인생은 다름 아니고 은퇴 후의 진인사대천명을 뜻한다. 30-40년 동안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였으니 이제 운명이다 할 때까지 건강하고 즐겁게 지내는 묘법을 의사로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운동을 많이 하라,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그러나 운동을 자주하여 체온을 유지하도록 한다. 체온유지는 암세포를 사멸시키고 면역세포기능을 상승시킨다.

▲참아라, 그러면 혈관성 치매를 대폭 줄인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천국의 열쇠가 되는 것이다.

▲기다려라, 인디언의 기우제는 비가 내릴 때 까지 제사를 지낸다. 심리적 빨리 빨리로 부작용은 암을 발생시키고, 뇌졸중의 원인이 된다.

▲웃어라, 그러면 몸매에 있는 근육 1천472개가 움직인다. 자연스럽게 신체의 근육운동이 되어 암 발생을 줄인다. 저비용 고소속을 올리는 방

법이다. 자주 웃어라.

▲들여라, 이것은 돌부처님도 돌아 세운다고 한다. 말을 배우는 회귀신경은 2년이고, 잘 듣는 연습을 하는데 60년 걸려 60세를 이순(耳順)이라고 한다. 그러니 노인성 난청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휴면세를 자주 즐겨라.

▲기억력 재생을 훈련하라, 뇌신경은 한번 죽으면 재생이 되지 않는 것이 통설이나 그렇지도 않다. 뇌신경도 훈련하면 10년, 20년 후에 재생되는 경험에 있다. 매일매일 기억력 훈련을 하라. 후천성 유전학을 믿어라.

▲말이 씨가 되는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 생각(think)을 감사(thank)로 바꿔라. i(아이)를 a(에이)로 바꾸면 된다.

끝으로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 우리 자신을 알고, 왜 태어났을까? 좋은 일을 하라고 했을 것이다. 손발이 없는 몸통이라도 우리사회에 필요한 것이고 몸통을 돕는 일들이 생겨날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 나온 귀한 생명으로서 하늘의 명과 뜻을 기다리며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수인사대천명(修人事待天命) 일진대 생각이 깊어지는 5월, 조박사님이 주신 지혜처럼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멋진 인생임을 되새겨 본다.

현장칼럼



박 성 수

광주전남연구원장

한전공대 설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1월28일 한전공대 부지로 혁신도시내 부영C.C를 확정한다 이어 4월 29일에는 한전과 전남도, 나주시에 한전공대 설립 이행 협약을 있었다. 2022년 3월 개교까지 채 3년도 남지 않은 기간에 한전공대는 대학설립기본계획 수립, 법인 설립, 총장과 교직원 채용, 학사구조 결정, 캠퍼스 조성, 도시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학생모집까지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다.

지난 2년간 한전공대는 설립 필요성과 부지 선정에 논의가 집중됐다. 지자체간 과도한 경쟁으로 몸살을 앓았으면서도 이는 한전공대의 조기 정착에 중요한 자양분이 됐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여러 논의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 간과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

바로 한전공대의 역할이다. 필자는 이를 혁신과 공유, 문화공간, 집단지성, 랜드마크 등 다섯 개 키워드로 요약하고자 한다.

첫째는 한전공대와 혁신도시간의 관계이다. 한전공대는 앞으로 연구개발 클러스터 기능과 함께 지역발전선도기관으로서 '지역혁신'의 중심축 역할을 해야 한다. 2003년 이후 혁신도시 조성은 '지역혁신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라는 이론을 기반으로 추진됐다. 중앙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 생산, 연구개발, 기업지원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이들과 상호 학습과 혁신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었다. 즉 혁신도시는 클러스터, 학습, 혁신을 구성요소로 한다. 또한 이러한 세 가지 클러스터를 기획, 조정할 수 있는 지역발전선도기관(Regional Development Agency)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국 10개 혁신도시에서 지역발전 선도기관을 찾을 수 없다.

둘째, 한전공대는 '공유'의 산실이어야 한다. 대학 개교와 함께 우수 교수진, 학생뿐만 아니라 국내외

에너지 선도기술 개발, 융합형 인재 육성, 연구개발 플랫폼 형성과 함께 지역대학간 연구협력체(Research Triangle Park)의 중심 역할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캠퍼스내 연구와 교육을 넘어서 지역과 동행하는 대학이 되어야 한다. 캠퍼스 조성시 교육, 연구, 지원시설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도서관 등을 지역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시설복합화를 추진해야 한다.

셋째, 창의적 '문화공간'으로서 한전공대의 역할이다. 대학이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대학촌이 형성된다. 젊은이들의 공간이 탄생한 것이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시는 광주전남지역 중 젊은층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지만, 문화시설은 그리 많지 않다. 이른바 '핫플레이스'가 없다. 우수한 인적자원의 결집된 한전공대는 소비 중심이 아니라 창조와 혁신의 문화공동체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한전공대는 '집단지성(coll ective intelligence)'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대학 개교와 함께 우수 교수진, 학생뿐만 아니라 국내외

유능한 인재의 방문이 잦을 것이다. 동시에 혁신도시내 공공기관 임직원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16개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대학원 진학 등을 통한 자기개발과 역량 강화에 몰달라고 있다. 때문에 세종시 등은 국립행정대학원 유치 혹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1천여명이 넘는 고학력 인재들이 집단지성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끝으로 한전공대는 그 자체로 하나의 '랜드마크(landmark)'이다. 전국 혁신도시내 대학을 설립한 한 곳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가 유일하다. 빛가람혁신도시는 한전공대 설립을 통해 이미 '혁신도시시즌2'에 한 발짝 다가섰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전공대는 또 다른 랜드마크를 준비해야 한다. 포항공대의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에서 보듯 국가의 대형 연구시설 유치라는 프로젝트를 구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한전공대 담론은 혁신과 공유, 문화공간, 집단지성, 랜드마크 등으로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

상 아파트 및 3층 이상 가옥사에는 소방자동차 전용 구역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차 시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되고 소방자동차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밖에 소방자동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의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된다. 지금까지 변경된 도로교통법을 간단하게 알아봤다.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법을 지키기 위한 법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할 우리의 일상생활로 인식하고 반드시 실천하도록 하자.

/김성호·동부소방서 대인119안전센터

대천명(待天命) 멋진 인생

社說

문 대통령, 광주시정 극찬 시민 자긍심 높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광주형 일자리' 등 광주시가 추진하는 주요시책을 일일이 열거하며 극찬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주는 이제 경제민주주의와 상생을 이끄는 도시가 됐다"면서 "노사정 모두가 양보와 나눔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고 '광주형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올해 1월 광주시가 현대차와 완성차공장 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 일궈낸 노사상생 모델로 모든 지자체가 부러워하며 전북 군산과 경북 구미 등에서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를 모색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수소산업 등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노력도 높이 평가했다. 광주시는 인공지능 중심 창업단지 조성과 지난 3월 국내 최초로 준공한 수소융합에너지 실증센터에 이어 국내 최대 규모의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 추진, 스마트시티 헬린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구 2·28 민주운동'을 상징하는 광주228번 시내버스와 '광주 5·18'

를 상징하는 대구 518번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것을 언급하며, 역사 왜곡과 분열의 정치를 반대하고 연대와 상생 협력을 실천하고 있는 광주와 대구를 두고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용서와 화해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광주가 갑염병 대응, 국가안전대진단, 재해 예방 등 재난관리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율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뤄 '국민안전' 모범도시가 되고 있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이례적인 찬사는 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았으나 한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지 못하고, 특별법 통과 및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조차 못한 데 대한 미안함과 높았던 기대만큼 성과를 거뒀던 광주시민과 이 용성 시장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정부와 문 대통령이 광주에 진 마음의 빛을 의례적인 수사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화법으로 전달함으로써 광주시민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전남 민간투자 저조 '6천만 관광' 차질 우려

전남도가 민선7기 '관광객 6천만명 시대'를 목표로 도내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부문 투자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남 도내 민간투자계획이 있는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24개소이고, 총 조성계획투자비는 8조100억원(공공 1조4천590억원여원, 민간 6조5천516억원여원)이다. 현재까지 집행실적은 2조1천129억원여원으로 계획 대비 집행률 26.3%이다. 이중 공공부문(국비, 지방비) 집행률은 9천579억원여원으로 조성계획 대비 66%이지만, 민간부문은 1조1천383억원여원으로 계획대비 집행률이 17.4%에 불과했다.

또한, 관광단지·관광지 내 상가·숙박 시설 분양률은 숙박 시설의 경우 총 분양계획 277만6천576㎡ 중 분양실적은 83만1천㎡로 분양률은 29.9%이고, 상가시설 총 분양계획 71만829㎡ 중 분양실적은 20만9천939㎡로 분양률은 29.5%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대부분의 민간투자 유치 개발 사업은 공공기관에서 국가 예산 등 공공사업비로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편익시설을 설치

하고 조성한 부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분양하여 관광시설물을 설치·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일찍이 해양문화관광산업을 투자유치 유망산업으로 선정하고 다각도로 유치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민자투자 유치가 실패할 경우 조성된 기반시설이 장기간 활용되지 못함으로써 세금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관광지 조성사업의 경우 기획단계에서부터 과도한 민간투자계획을 지양하고, 사업의 재원조달 방식과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국민의 관광 향유권이란 공공성과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수익성 등 여건을 잘 조화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관광은 다른 지방의 자연경관과 독특한 문화 등을 체험하는 것이므로, 관광지 개발사업과 같은 하드웨어 확충과 함께 지방의 자연경관을 잘 가꾸고, 전남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문화상품과 관광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 김영록 지사가 공약한 전남관광공사 설립 등 전략적인 조직체계를 통해 '관광객 6천만명 시대' 달성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그래픽 뉴스

전남 온실가스 배출 최다...제철·시멘트 업종 주범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업종은 제철, 시멘트 등 1차 금속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았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최근 공개한 '2018 산업부문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산업부문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3억3천226만3천tCO2eq.(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한 단위)로 집계됐다.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는 한국에너지공단이 매년 시행하는 에너지소비조사이다. 이번 조사는 산업부문 사업체 약 10만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6월부터 3개월간 이뤄졌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17년 1월1일~2017년 12월31일이다.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를 아우른다.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산업부문 전체 기준 제1차 금속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7.3%로 가장 컸다. 제1차 금속산업은 고로, 전기로 등의 설비를 갖추고 각종 금속 광물을 가공해 기본 또는 반제품 형태의 제품을 만드는 업종을 말한다. 제철업, 시멘트 등이 이에 속한다. 화학 19.0%, 정유 11.8%, 비금속광물 7.6%, 그 외 기타 제조업 6.9%, 전자장비제조업 6.6% 등이 뒤를 이었다. 에너지원별로는 전력이 37.0%로 가장 많았고, 석탄류 31.8%, 석유류 20.6%, 도시가스 5.8%, 열에너지 3.2%, 기타연료 1.8% 순이었다.

지역(17개 시·도)별 보면 전남 23.6%, 충남 17.5%, 경북 14.1%, 울산 12.5%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많았다. 전남과 경북, 충남은 석탄류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았고, 울산은 석유류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았다.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살펴보면 대구, 울산, 부산, 경북, 경남을 포함하는 경상권(32.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南成淑 주필 朴俊洙 편집국장 吳星洙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초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650-2016 편집국 650-2017 업무국 650-2019
	정지부 650-2030	체육부 650-2065	광고문의 650-2072	
	경제부 650-2050	채우부 650-2080	경영지원국 650-2010	
	사회부 650-2040	사진부 650-2086	기획사업국 650-2079	
	문화부 650-2067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刊)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독자투고

소화전 주변 5m 주정차하면 안돼요

화재 및 구급 출동을 하는 소방차가 아무리 빠르게 현장에 도착하더라도 현장주변의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골든타임을 놓쳐 많은 인명피해를 보았다는 신문보도를 너무나 많이 접하게 된다. 소방차만 빠르게 도착하면 모든 사건 사고가 쉽게 해결될 거라는 생각은 주정차 시설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결코 해서는 안된다. 이와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소방차의 빠른 출동과 화재진압을 위해서 2018년 8월10일부터 개정된 소방 관련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벌써 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주변 소화전 근처에 불법주정차를 쉽게 볼 수가 있다.

이처럼 불법주정차가 쉽게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좁은 도로사정과 주차가의 주차난이 한몫하겠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소화전 근처에 절대 주차를 해서는 안된다는 강한 인식이 아직도 우리 뇌리에 자리잡지 못한 탓이 가장 큰 문제 일 것이다. 나부터서 이법이 시행되기 전만해도 '소화전 근처 절대 주차금지' 머리에 새긴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한순가락에 배부를 수는 없다. 이제부터라도 소방시설 5미터 주변에는 절대 주정차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운전하면 지켜야 할 소방법을 알아보자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 사진 등을 보내주세요.